

◎ 다음 주 기도/ 1부 강정화 집사, 2부 이연호 장로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2:30

인도: 홍순용 목사

경배와 찬양	-----	페트라 찬양단
목도	-----	다같이
신앙고백	-----	다같이
찬송	-----	다같이
기도	-----	다같이
성경봉독	-----	다같이
찬양	-----	다같이
설교	-----	다같이
찬송	-----	다같이
광고	-----	다같이
합심기도	-----	다같이
축도	-----	다같이

- ◎ 다음 주 찬양/ 시무집사회 회원
◎ 다음 주 기도/ 황호준 시무집사

수요 밤 예배

저녁 7:00

인도: 김태욱 목사

목도	-----	다같이
찬송	-----	다같이
기도	-----	다같이
성경봉독	-----	다같이
설교	-----	다같이
찬송	-----	다같이
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 다음 주 기도/ 이에언 시무집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인도: 홍순용 목사

말씀: 로마서 강해

금요 밤 예배

오후 8:00 인도: 홍순용 목사

말씀: 여호수아 강해
특송: 예배위원회

예배 / 봉사위원

4월	안내 및 헌금 위원	교회 정문	1층 현관	본당 입구	예배실
		조범조 집사	김수길 시무집사	문영숙 시무권사	김영희 시무권사 정혜진 시무권사
		계수		봉헌	
		최현철 / 김수길		1부 김성민 시무집사 2부 배금환 시무집사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윤대원(문선영) 이승하(유영순) 임한신(김진임) 한상우(김예스더) 이은희 장혜정 천옥자 한용숙
감사 헌금	김영만(김기옥) 김행자 배삼례 소인섭 이은희 정혜진 무명
특별 감사	무명
심방 감사	송정미 신영자 이순자B 이옥자 이옥주 정옥희 최수남 최임숙
선교 헌금	한상우(김예스더) 김진숙 문경옥 심경선 양희순 오성만 유영순 이승하 이은희 이훈 장경호 홍영숙
건축 헌금	한상우(김예스더) 김진숙 문경옥 유영순 이승하 이은희 이훈 홍영숙
증식 헌금	최홍기(김영희) 장명숙
장학 헌금	이승하(유영순) 박상철
부활 감사	홍순용 외 152명 (₩6,802,000)

※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 농업 100051-51-074600 (예금주: 동산교회)

※헌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주 증식헌금

- ① 최현철 시무집사(오미영 집사)님 가정 (결혼기념감사)
② 김형우 시무집사(이근복 집사)님 가정 (결혼기념감사)

[2023년 성경읽기]

2독 : 노월선 권사 (1독)	3독 : 박상철 장로 (1독)	4독 : 김길자 권사 (1독)
5독 : 정옥희 권사 (1독)	6독 : 하명숙 권사 (1독)	7독 : 김길자 권사 (2독)
8독 : 장정국 장로 (1독)	9독 : 김미환 집사 (1독)	10독 : 오미영 집사 (1독)
11독 : 정혜진 권사 (1독)	12독 : 이근복 집사 (1독)	13독 : 조영미 집사 (1독)
14독 : 김홍길 장로 (1독)	15독 : 김귀숙 권사 (1독)	16독 : 이병희 장로 (1독)
17독 : 조정구 권사 (1독)	18독 : 이에언 권사 (1독)	19독 : 김길자 권사 (3독)

주/간/말/씀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

(본문: 마 3:13-17)

이전내용: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 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경고했으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하실 분임을 알아야 한다.

[문단 나누기]

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하자 요한이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1-2).
2. 예수께서 세례를 허락하도록 말씀하시고 모든 []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자 요한이 허락을 하다(3).
3.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함을 보았고, 하늘에서는 내 []아들이요 내 [] 자라 하시는 소리가 있었다(4-5).

[중심사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또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심을 알아야 한다.

[알게 된 사실]

- 1)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 2) 요한은 말리고,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3)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임을 말한다.
- 4)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
- 5)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다.

[적용하고 기도하기]